

LG상남도서관 해외 콘텐츠 도입 사례

- LG사이언스랜드와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제휴 사례 -



글 | 이 은 슬
LG상남도서관 사서
eunsol@lg.or.kr

2012년 10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학교 교수가 영국의 존 거던 박사와 공동 선정됐다. 이웃나라 일본의 15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 소식이다. 일본 과학계에서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이유로 꼽히는 것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가 있다.

JST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소관의 독립행정기구로 과학기술연구 및 협력 지원, 과학기술정보 유통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교수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JST가 지원하는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도서관이자, 한국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인 LG상남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일본의 JST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기관이었다.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JST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간행물을 가끔씩 살펴보던 어느날 우연히, 《Science Window》(<http://sciencwindow.jp>)라는 간행물이 눈에 들어왔다. 《Science Window》는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과학교육지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일상생활에 관해 소박한 과학적 의문을 갖는 독자를 위해, 알기 쉬운 내용을 담은 과학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미지에 이끌려 몇몇 기사를 읽어보던 도중,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Science Window》를 연관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인 LG사이언스랜드(<http://lg-sl.net>)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과학 포털 사이트로, LG연암문화재단 소속 LG상남도서관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대상 과학정보 통합 서비스이다. 2003년 오픈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학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 운영되고 있다. LG사이언스랜드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제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필자에게, 《Science



▲ LG사이언스랜드 메인 화면



▲ LG사이언스랜드 '동물들의 비밀이야기' 콘텐츠 화면

Window》의 콘텐츠를 LG사이언스랜드를 통해 한국에 소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Science Window》는 일본 국내 교육기관과 유관기관(도서관, 과학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콘텐츠 사용도 비교적 간단하게 허용되고 있었다. JST의 입장에서 보자면 LG상남도서관은 해외 기관이기는 하나, 과학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곳이므로 콘텐츠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먼저 《Science Window》 편집부에 이메일을 보내 LG상남도서관과 LG사이언스랜드를 소개하고, 《Science Window》 콘텐츠 일부를 LG사이언스랜드 이용자에게 한국어 번역 및 웹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러 번의 이메일과 전화가 오가고 상호 검토가 완료된 후, 《Science Window》 편집부에서는 몇 가지 조건과 함께 콘텐츠 사용 승낙 의사를 전해왔다.

그리고는 바로 한국어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Science Window》는 기본적으로 인쇄물로 발간되고, 해당 인쇄물의 PDF파일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LG사이언스랜드의 웹 콘텐츠 형식과는 다른 점이 많아 번역 이후에도 콘텐츠 재가공 절차가 필요했다. 번역, 재가공, 검수, 서비스 업로드의 과정은 예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으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기도 했다.

현재 LG사이언스랜드에서는 《Science Window》의 콘텐츠 2종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 전역의 동물원에

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생태와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징을 소개해 주는 '동물들의 비밀이야기(動物たちのないしよ語)'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로이 왕복한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과학역사와 과학기술의 현재모습, 미래예측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타임워프 꿈의 여행(タイムワープ夢飛翔)'이다. 전자는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의 사진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후자는 매 콘텐츠마다 독특한 발상으로 과학 역사를 다가가기 쉽게 풀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콘텐츠이다.

이로써 LG사이언스랜드에서는 일본 제작 콘텐츠를 처음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니기에 첫 인상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었으나, 색다른 시각과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이므로 누군가에게는 흥미롭고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콘텐츠가 LG사이언스랜드에서 어떻게 이용될지, 이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꽤나 기대가 된다.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사이언스 아고라(http://www.scienceagora.org)'라는 JST 주최의 과학 행사에서 《Science Window》의 해외 활용 사례로 LG상남도서관이 소개되었다. 이런 다양한 기회를 통해 JST와는 지속적인 제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다방면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사이언스랜드, LG상남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P)